

금호아시아나, 금호고속 인수 ‘안갯속’

4000억대 자금 조달 어려움, IBK와 가격협상도 난항

오늘 우선매수청구권 소멸 ... 협상 시한 연기 가능성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기업’ 찾기가 안갯속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26일로 예정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고속 우선매수청구권 소멸시한을 앞두고 금호아시아나가 인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금호아시아나가 금호고속 매각 대금으로 거론되고 있는 4000억대의 자금을 이날 오후까지 마련하면 금호고속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품에 되돌아 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금호고속 대주주인 IBK·케이스트파트너스 사모펀드(이하

IBK 펀드)와의 협상에 따라 우선매수청구권 시한이 연기될 가능성도 나온다.

25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호아시아나가 금호고속 인수를 위해 자금조달처로 내세운 컨서스자산운용이 금융감독원에 등록·인가신청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호아시아나는 컨서스자산운용 및 컨서스파트너스를 주축으로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운 뒤 NH농협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금호고속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현재로서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은 것이다.

가격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IBK 펀드와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고속 보유 자산 중 금호리조트 지분(48.8%) 처리 방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잡지 못하고 있다. IBK 펀드는 지난 2월23일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금호아시아나에 4800억원을 제시했지만 금호 측은 장부가 770억원가량의 금호리조트 지분을 제외하고 4000억원에 금호고속을 인수하겠다고 역제안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금호아시아나가 금호고속과 금호리조트 지분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IBK 펀드가 인수가를 조정하는 내용의 협상을 벌여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우선매수청구권 소멸이 다가온 상황이지만 결국 금호아시아나가 금호고속

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IBK 펀드가 금호고속을 금호아시아나에 넘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협상의 주체가 결국 두 곳인 만큼, 얼마든지 조율에 따라 시한을 연기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각이 길어질수록 금호고속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데다, 향후 운영 주체를 따져봐도 원주인인 금호아시아나의 품에 되돌아가는 게 ‘원원 게임’이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인수 과정에서 고비는 있었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며 “박삼구 회장이 말한 ‘순리대로’ 금호고속 인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ATM·CD기 송·출금 수수료 천차만별

7개 시중은행 최대 2배차

금감원 ‘은행별 수수료 현황’

주요 시중은행들이 ATM·CD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적용하는 송금·송금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다.

금융감독원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시중은행 채널별 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외환·SC·씨티 등 7개 시중은행의 송금·송금 수수료는 같은 조건에서도 2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은행의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로 송금할 때 국민·하나가 10만원 이하의 경우 250원, 10만원을 넘으면 5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신한은 5만원을 기준으로 250~500원의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에 우리·외환·씨티는 금액과 상관없이 500원의 수수료를 물리고, SC는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600원으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적게는 250원부터 많게는 600원까지 두 배 이상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다른 은행 고객이 영업시간 외에 ATM·CD기를 이용해 송금할 때에도 국민·신한·외환·씨티는 900원의 수

료를 적용하고, 우리는 800원, 하나·SC 은행은 1000원으로 달랐다.

타행 고객이 영업시간 내에 같은 기기에서 송금할 때의 수수료도 국민이 600원, 신한·우리·외환이 700원, 씨티가 800원, 하나·SC가 90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송금 수수료도 차이가 난다. 해당 은행의 고객이 ATM·CD기를 이용해 10만원 이상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야 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 적용되는 수수료는 하나·외환이 900원이고 국민·신한·우리·SC·씨티가 1000원이다.

영업시간이라고 해서 다른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영업시간에 ATM·CD기를 사용해 10만원 넘는 돈을 타행으로 송금할 때 국민, SC, 씨티의 수수료는 1000원으로 영업의 시간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는 700원, 우리는 750원, 신한·외환은 800원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최대 300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10만원 이하의 소액을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도 영업시간 내에는 아예 수수료가 없는 경우(씨티)부터 800원을 적용하는 경우(SC)까지 천차만별이다. 영업시간 외에도 500원(국민)부터 750원(우리)까지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나들이철 또 ‘金겹살’

돼지고기값 ‘천정부지’

3년5개월만에 최고가

당분간 상승세 지속될 듯

국민육류 돼지고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삼겹살 가격도 올라 또다시 ‘金겹살’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이마트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에 따르면 돈육 대표가격은 5월(1~22일) 평균 1kg당 5862원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돈육 대표가격이 5800원을 넘는 건 지난해 6월 5838원 이후 처음이다. 2011년 12월 6072원을 기록한 이래 가장 비싸다.

돈육 대표가격의 상승으로 올해들어 이마트의 냉장 삼겹살 월 대표가격도 1월 2110원(100g당), 2월 2000원, 3월 2060원, 4월 2210원, 5월 2340원으로 계속 오르고 있다.

돈육 대표가격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돈육 kg당 평균가격을 말하며, 일반적인 통계로 사용된다.

돼지고기 수요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돈육 가격은 4월 4717원, 5월 4969원, 6월 5838원, 7월 5263원, 8월 5177원이었다.

여름철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는 건 캠핑 문화의 확산으로 본격적인 나들이에 구



이용 고기로 인기를 끌기 때문이다. 이마트 5월(1~21일) 매출자료를 보면 아외용 도자리·피크닉 백·아이스박스·바비큐용 그릴제품이 포함된 아웃도어 키친 용품 매출은 6.5% 상승세를 보였다. 이마트는 공급이 감소한 것도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발생한 유행성 돼지 설사병과 구제역의 영향으로 돼지 폐사가 잇따랐고 어미 돼지의 수가 감소해 이달 출하되는 돼지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한 122만7000마리로 전망됐다.

유통업계는 여름철 나들이가 줄어들 9월 이후에나 돼지고기 값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때이른 무더위에 ... 냉동식품 인기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25일, 백화점 식품매장에 냉동 상태로 보관이 가능한 냉동 블루베리와 두리안, 망고 등 더위를 날려줄 냉동 과일 상품이 대거 출시돼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한국 창업기업 3년후 생존율 41%

OECD 회원국중 최하위

룩셈부르크 66.8% 최대

국내 창업기업 수가 매년 늘고 있으나 창업생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에 그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5일 공개한 ‘IT벤처기업의 데스밸리 극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창업기업 수는 지난해 8만4697개로 전년보다 12.1%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5만855개(-4.9%)로 감소한 이후 2009년 5만6830개(11.7%), 2010년 6만312개(6.1%), 2011년 6만5110개(8.0%), 2012년 7만4162개(13.9%), 2013년 7만5574개(1.9%)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창업기업은 ‘데스밸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좌초하는 경우가 많아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데스밸리는 신생 기업이 자금조

달, 시장진입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창업 후 3~7년 사이 기간을 일컫는다.

한국은 창업기업의 창업 3년 후 생존율은 2013년 기준 41.0%로 OECD 17개 주요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에 그쳤다.

룩셈부르크가 66.8%로 가장 높았으며, 호주 62.8%, 이스라엘 55.4%, 미국 57.6%, 이탈리아 54.8% 순이었다.

한국은 신생 기업의 75% 이상이 평균 창업 5년이 안돼 폐업했다. 10년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은 8% 남짓에 불과해 평균 생존기간이 짧았다.

이는 시장 진입은 용이하지만 경쟁이 심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생계형 창업 비중이 높은 반면 시장의 기회를 잡아 사업화하는 기회형 창업 비중이 낮은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 창업기업 중 생계형의 비중이 63%로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기회형은 21%에 그쳤다.

/연합뉴스

두암신협 자산 2,200억 달성!!
조합원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달 감사이벤트

10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2.60%** (1억이상 2.60%+@)

수시 입출금식 예금 단 하루만 맡기셔도 **연 2.10%** (금액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 신협예금
- 1인당 8,000만원까지 세제 혜택 (61세 이상) -

두암신협 탁구동호회 회원모집중

동강대학 + 설점 말바우시장 두암신협 263-0136 본점 (말바우사거리)	두암타운사거리 + 설점 기산로말바우시장 두암신협 264-1232 울곡지점 (두암중학교 입구)	부영아파트 + 설점 청단2지구 호반아파트 두암신협 572-9511 청단지점 (호반아파트 청문 맞은편)
--	--	---

MASCOTTE 3x better

유럽시장 최고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마스코트 제품이 여러분을 찾아옵니다.

전국대표번호 | 1899-9128

서울총판 010-2324-9523	경기총판 010-7533-5683	충청총판 010-8786-5904
전북총판 010-9087-4859	전남총판 010-9087-4859	경남총판 010-3853-5460
강원총판 010-5792-8872	제주총판 010-2324-9523	경북총판 - 모집중

* 마스코트 제품 및 몰타타버섯 취급원을 위 총판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보, 벨리치, 천지당배 등 달배스메인 지정을 받으신 모든 점주님)